제7-8주_음운론적 제약

- 음운론적 제약의 정의와 종류를 안다.
- 제약의 분류 방법과 특성을 이해한다.

음운론적 제약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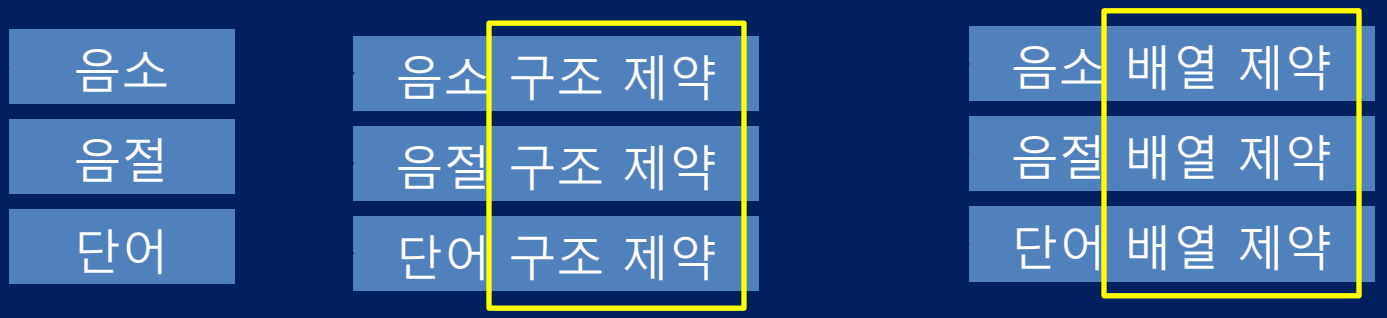
제약의 사전적 의미

1)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하는 일 또는 조건 자체
2) 사물의 성립에 필요한 규정이나 조건
3) [철학] 한 현상의 타당, 존재, 생기, 변화 따위에 대한 규정

음운론적 제약이란

음운론적 단위들은 내적인 질서를 지키며 표면에 실현되는데, 이런 내적 질서 가운데 하나가 음운론적 제약이다.

어떤 음운론적 단위의 구조 또는 단위들의 연쇄(결합, 배열)에 대한 제약



음운론적 제약의 필요성

말소리의 변화(음운 변화)를 발생시키는 동인이 됨

'how'에 대한 설명만 가능했던 음운 현상에 대해 'why'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게 함

국밥 → [국**빱**]	음운 현상 : 평장애음 뒤 경음화
	제약 : 평장애음 뒤에 평장애음이 올 수 없다.
콧물 → [**콘**물]	음운 현상 : 비음동화
	제약 : 공명자음 앞에 평장애음이 올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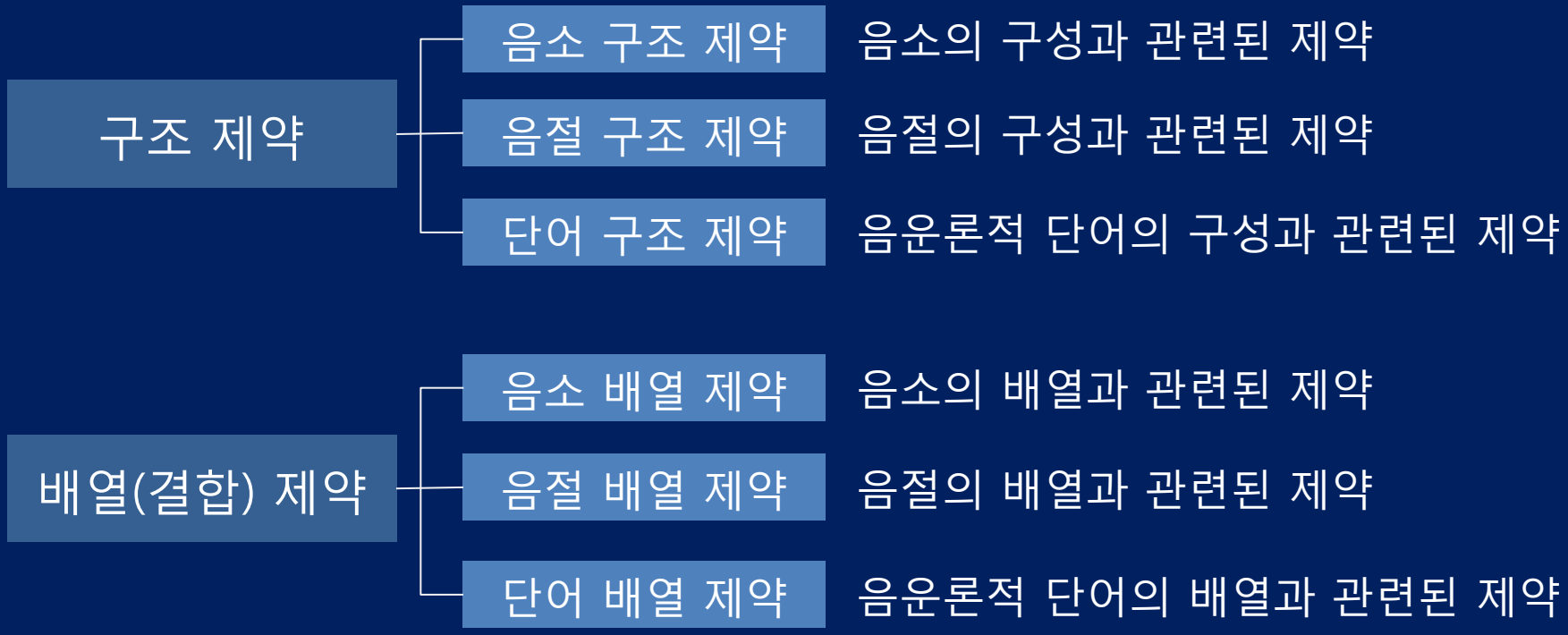
결국, 음운 연쇄 과정이 음운론적 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제약에 위반되지 않는 음소 결합이 되도록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음운론적 제약의 위반성에 대한 관점

1) 협의의 제약 : 예외를 거의 허락하지 않는 강력한 제약

2) 광의의 제약 : 언어 현상 전반에서 관찰되는 확대된 제약,
얼마든지 위반 가능하다고 봄

음운론적 제약의 체계


구조 제약
음소 구조 제약
음소의 구성과 관련된 제약
음절 구조 제약
음절의 구성과 관련된 제약
단어 구조 제약
음운론적 단어의 구성과 관련된 제약
배열(결합) 제약
음소 배열 제약
음소의 배열과 관련된 제약
음절 배열 제약
음절의 배열과 관련된 제약
단어 배열 제약
음운론적 단어의 배열과 관련된 제약

음소 배열(결합) 제약

1) 활음+단모음
2) 자음+모음(활음)
3) 모음+자음
4) 자음+자음
5) 모음+모음

1) 활음+단모음 배열 제약

	이	에	아	으	우	어	오
j계	*	예	야	*	유	여	요
w계	위	웨	와	*	*	워	*
ɯ계	의	*	*	*	*	*	*

활동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 양상을 보고, 가능한 제약(5개)을 말해 보자.

1) 활음은 단모음에 후행하지 못한다.(→상향이중모음만 존재한다)
2) 어떠한 활음도 단모음 /으/와 결합하지 못한다.
3) /j/는 /이/ 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4) /w/는 원순성 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5) /ɯ/는 /이/ 모음 이외의 단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2) 자음+모음(또는 활음) 배열 제약

※ 국어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고,
자음과 활음의 배열 과정에 제약이 있다.

활동

다음 예들에 적용될 수 있는 자음과 활음의 배열 제약을 말해 보자.

1) 자음 뒤에서 활음 / ɯ /은 결합하지 못한다.

흰구름 [힌구름], 무늬[무니] VS 의사[의사], 의자[의자]

2) 경구개음과 활음 /j/는 결합하지 못한다.

juice [주스], chocolate[초콜릳] , 지-+-어→져[저]

3) 양순음과 활음 /w/는 결합하지 못한다.

뭐하는데[머하는데~모하는데], 보-+ -아→봐[바]

4) 'ㄷ/ㅌ/ㄸ'은 '이'나 'j'앞에 오지 않는다.

텬디>천지, 둏다>좋다, 밭이[바치]

BUT 잔디[잔디], 마디[마디], 느티나무[느티나무], 띠[띠]

3) 모음+자음 배열 제약(종성제약으로 대체)

4) 자음+자음 배열 제약

활동

다음 예들은 어떤 음운현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제약을 무엇인지 말해 보자.

1) 평파열음 뒤에는 평장애음이 올 수 없다.(평파열음 뒤 경음화)

믿고→믿꼬, 먹소 →먹쏘, 업지 →[업찌]

2) 'ㄹ'과 'ㄴ'은 어떤 순서로든 연쇄할 수 없다.

ㄹ+ㄴ→ㄹㄹ :칼날[칼랄], 달나라[달라라]
ㄹ+ㄴ→ㄹ탈락 : 알+는[아는], 울+니[우니]
ㄴ+ㄹ→ㄹㄹ : 신라[실라], 천리[철리], 난로[날로]

3) 'ㅎ'과 평장애음은 어떤 순서로든 직접 결합할 수 없다.

좋고[조코], 낳지[나치], 놓다[노타] / 국회[구쾨], 밥하다[바파다]

방언에 따라 제약은 달라질 수 있다.
밥하고[바바고], 급하고[그바고]

4) ‘ㄷ+ㅅ’은 연쇄를 허용하지 않는다.(동일 조음 위치의 ‘ㄷ’ 탈락)

묻소→묻쏘 →[무쏘], 믿습니다→믿씀니다 →[미씀니다]

5) ‘ㅎ’는 모음,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 올 수 없다.(ㅎ 탈락)

좋은[조은], 놓으면[노으면], 전화[저놔], 은행[으냉]

6) 비음 앞에는 장애음이 올 수 없다.

국민[궁민], 업무[엄무], 듣는[든는]

7) ‘ㄹ’ 앞에는 ㄹ 자음밖에 올 수 없다.

권력[궐력], 음운론[음운논~음울론], 능력[능녁], 독립[동닙]

5) 모음+모음 배열 제약

모음과 모음의 연결을 꺼린다.(모음충돌 회피→탈락, 축약, 활음 첨가)

가+았+다→갔다, 오+았+다→왔다, 그리+어 →그려
혜지+아→혜지야　VS 효정+아 →효정아
BUT　오이, 아우 등

음절 구조 제약

1) 초성 제약
2) 중성 제약
3) 종성 제약
4) 초성-중성, 중성-종성 제약

1) 초성 제약

1) 초성에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
2) ‘ㅇ’은 초성에 올 수 없다.

2) 중성 제약

1) 중성에 하향이중모음은 올 수 없다.

3) 종성 제약

1) 종성에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
2)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은 종성에 올 수 없다.

4) 초성-중성, 중성-종성 제약

1) 초성 자음 뒤에 이중모음 ‘의’가 올 수 없다.
2) 이중모음 ‘의’ 뒤에 종성 자음이 올 수 없다..

음절 배열 제약

중성과 중성 사이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만 허용한다.

삶도[삼도], 삶지[삼지], 밟은[발븐], 밟다[밥따]

음소 배열 제약 가운데 자음과 자음의 연쇄 제약이 음절 배열 제약에 포함된다.

단어 구조 제약

활동

다음 예들은 어떤 음운현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제약을 무엇인지 말해 보자.

1) 'ㄹ'은 어두에 올 수 없다.

당락-낙방, 쾌락-낙원, 법률-율법
VS 라디오, 리본, 로망

2) 어두에서 '이'나 'j' 앞에 'ㄴ'이 올 수 없다.

남녀-여성, 어금니-이, 은닉-익명, 내년-연도
BUT 녀석, 니, 니나노, 님, 냠냠 VS 뉴스

※ 이 두 제약은 고유어와 한자어에만 적용되고, 외래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어 배열 제약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와 '이' 또는 'j계 이중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결합할 수 없다.

집안일[지반닐], 헛일[헌닐], 솜이불[솜니불], 금융[금늉~그뮹]

짓이기다[진니기다], 맨입[맨닙]

이번 여름[이번 녀름], 입법 예정[입뻠 녜정], 한국 요리[한궁뇨리]

활동

위 제약은 어떤 음운 현상을 발생시켰는가, 동일한 예를 찾아 보자.

활동

다음 외국어 단어를 우리 말로 발음해 보자.

all night / on-line / own room / back up

1) 우리반 학생들은 위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조사해 보자.

2) 원래의 외국어 발음과 국어의 발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보자.

3) 위 단어에 대한 국어 발음은 어떠한 음운론적 제약과 관련되는지 생각해 보자.